

넓은 여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콘텐츠의 마법

글 신다혜 객원기자(dhshin131@techm.kr) 사진 송은지

보안여관

서울 동의동 골목길, 경복궁 담장을 따라가다 보면 보안여관이 보인다. 다른 건물들에 비해 소박한 외양은 자칫 지나치기 쉽지만, 요새 좀처럼 볼 수 없는 '여관' 간판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한 눈에도 오래돼 보이는 소품들이 손님을 맞이한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경고 뜻말과 벽에 적힌 중국집 전화번호, 삐걱대는 마룻바닥 소리와 세월의 냄새는 누군가에게는 향수를,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느낌을 준다.

보안여관은 1930년대에 문을 열어 2004년까지 여관으로 운영됐다. 이후 최성우 보안여관 대표(일맥문화재단 이사장)에 의해 작품전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보안여관의 전시회를 알고 방문하는 관광객도 있지만 경복궁을 산책하던 관광객이나 북악산을 등반하고 내려가다가 방문하는 이들도 많다. 허름한 건물, 창문 너머로 보이는 미술 작품이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것. 보안여관은 시인 서정주와 김동리 등 문인들이 함께 모여 문예동인지 '시인부락'을 창간한 곳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이상, 이중섭 등도 보안여관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옛 문인들의 쉼터이자 예술창작 공간이었던 보안여관은 이제 색다른 예술 공간으로 맥을 잇고 있다. 최 대표는 올해 7월 보안여관 바로 옆에 '보안 1942'를 오픈했

다. 보안 1942는 카페와 책방, 전시 갤러리와 게스트하우스를 갖추고 있는데, 젊은 예술인들이 모여 작품을 구상하고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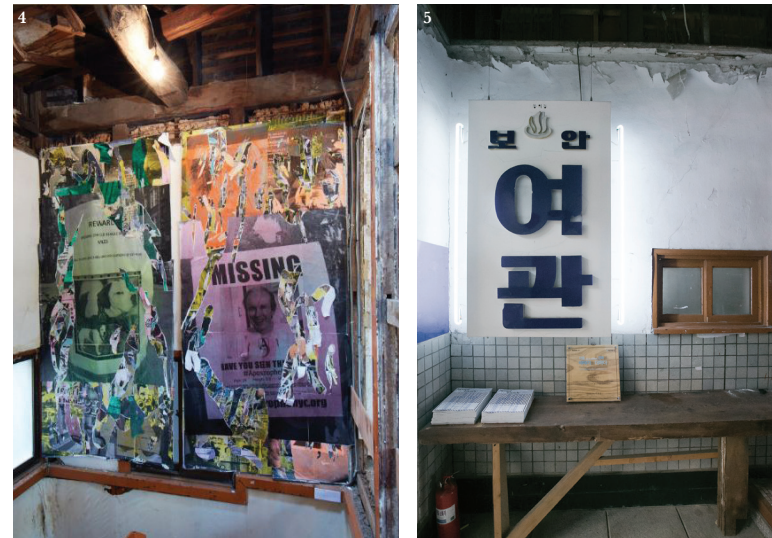
최 대표는 "보안여관과 보안 1942는 단순한 작품 갤러리가 아닌 복합문화공간"이라며 "이곳을 찾는 젊은이들이 많은 이유는 오랜 세월과 흔적을 간직한 공간이 오히려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①



최성우 대표는 보안여관 공간 안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소통하고 각각의 역량을 발휘하는 문화 거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핫플레이스①



- 1 보안여관은 1942생활일착형 예술 공간이다.
- 2 보안여관에서는 여관을 운영할 당시 있었던 소품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3 신관 아트 스페이스 보안 1942 지하에 위치한 보안책방
- 4 보안여관의 객실에는 각각의 작품이 전시된다.
- 5 보안여관은 서정주, 김동리 등 다양한 문인들이 모여 최초의 문학 동인지 시인부락을 만든 곳이다.